

즐거운 출근길

배민기업 박성만

사랑하는 이 있어 아침 발걸음이 즐겁다.
그때는 봄, 그때는 봄, 또 흐를 봄
꽃은 새로이 있어 기쁜 기쁨이다.

내게 있어 정말 소중한 일터에
하루의 일과들은 언제나 즐겁다.
그때는 봄, 그때는 봄이 즐겁다.

당신이 있어 할 수 있는 훨씬 행운이
이 길로 딱딱한 외딴길에서 뚫어 줬다.
살아 돌아는 정이 무엇이란 다짐이다.
당신과 내 손이 비록 미끄러도 함께 깨고 싶고
떨 수 없는 사랑하기에 하얀 이 피아노 할 수 있잖아.
꽃 피고도 일터에...

과연 맛을 너무도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 이 아침의 출근을 떠날 것이다.
이 겨울 하얀 봄의 외로움 무척이나 대어 위해 일터이다.



박성만 사무는 DSME 직원임을 증명하고 있는
문득한 동화이자 1남 2녀를 둔 즐거운 가정이다.

DSME
40th
EVENT

도전! 137권의 사보를 모아라!

2013년 9월호부터 2014년 9월호까지 사보 표지(총 137권)를 촬영해서 원장실로 보내주세요.
2014년 10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입문서그림 065-735-9540, goodnews@dsme.co.kr)

DSME
Monthly Magazine
해오름터
플러스
2014.01 / VOL.226



◆ 실재력 ◆

300개의 빌딩이 빠지고도 멈추지 않는 아래층에 대한 열정
할 수 있는 일이자 좋아하는 일인 마케터와 풍생자이기 된
그는 행복만 마비되지않는다.

DSME 마우쫌신해방



원수업 고래의 꿈,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다의 제왕인 원수업 고래.

원수업 고래는

회사와 사수들이 대해양 시대를 이끌어가는
꿈의 상징입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던 지난 40년처럼

2014년은 100년 영속 기업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January, 2014 / vol. 226

발행처 (주)오르비온/서울시 | 발행일 2014년 1월 1일 | 발행인 고재우 | 주소 경인남도 거제시 마주동 7번지

편집실 기암동학그룹 095.736.8640 | 기획·디자인 유미진 02.2279.2209 | 인쇄 오디미디어



하오름터 플러스

DSME
Monthly Magazine

- 02 한 컷 단상 ... 원수업 고래의 꿈,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 04 커버 스토리 ... 내 나이 미혼 여성,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 06 共に to the 고향 ... 지킬 수 없는 목표는 어떤 2014년 나의 목표는?
- 08 밀착 동호회 ... 바둑 동호회/ 갑오년 목표는 득호우(得好友), 득인화(得人化)와?
- 10 찬란한 역사 ... 골라잇 크레인, 대우조선의 탄탄한 재무실력으로 우뚝 서다
- 14 힘내요! Mr.D ... 실력과 인성은 보양찬기가 최고, 목표를 향해 던져라
- 16 소원을 빌세봐 ... 애진이와 예심아, 가족달력의 모델이 되다
- 18 두근두근 우체통 ... 37년의 시간을 넘어 첫사랑의 꽃봉우리가 인계하다
- 20 트렌드를 만나다 ... 요즘 유행하는 핫한 문동? 살펴보고, 알아보고, 시작하자
- 22 거제의 속살 ... 우물꾸물 해안선에 흠뻑이 먹힌 보석들
- 24 Talk! Talk! 소식통 ... 최고의 안전 자카이를 찾아라 '도전 HSE 골든벨'
- 26 DSME Focus ... 4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 이루어내
- 28 DSME News
- 29 DSME 기록사
- 30 외글화글 게시판
- 31 글로벌 산책



내 나이 마흔 여섯, 죽을 때까지 즐겁게 달리고 싶다

심재덕(공우지원운영) 사주

심재덕 사주의 마라톤 인연을 이해할 어려움이야 어쩔 수 없다. 서번트(콜센터)를 3년간 이후에 원주하는 것 100회 이상을 기록한 지도 벌써 수년, 1,000만 이상의 인문로도 등 그의 영혼은 초인적인 기록의 연속이다. 외사의 수을 권량에도 스스로를 밀고 앞 행동을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20년 전에는 이제는 중년의 마라톤이 돼 버렸다. 그분의 시간을 즐겁게 달려온 심 사주 그의 웃음 가득한 이야기로 마음을 뽏겼다.



"마라톤을 하면서 300개 이상의 발걸음에 배앓이가. 낯을 저주하 있었어 한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이야 아예 없었던 이야기들 수가 많았어. 앞으로는 저는 지금처럼 꾸준히 달려갈 겁니다."

성실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다

"한국의 포레스트 걸프"라는 별명을 가진 심 사주,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2006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100마일 산악마라톤의 우승 기록(17시간 40분 45초)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황설일 것은 달리기로는 연벌 한 자루, 노르 한 권을 못 받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는 스스로 '나랑 달리기랑은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산악마라톤에 참여하면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렀다는 걸 알지 못했다. 한지 때도 구분이 잘 안 가는 산길을 밟고 나고 달릴 때면 눈이 아닌 은뿔의 감각으로 달렸다. 산 길에서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는 어니처럼 체득했던 감각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무릎을 꿇어 달랐다. 그렇게 자신을 믿고 달려온 모든 경기에서 그는 완주를 했다.

"저의 대회목표는 항상 우승입니다. 그 우승을 위해서 안다지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합니다. 그러나 결승선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할뿐 결승선을 넘으면 끝을 하던지 1등을 하던지 결과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가운데도 있듯이 결재보다 저는 성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스스로를 칭찬한다.

2014년 새해, 그의 달리는 이미 출간예정인 마라톤 계획이 백작이다. 그는 흥풍을 시적으로 다섯 개의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말한다. 그는 오늘도 앞으로 갈 건 페이스를 내다보며 혼돈과 끈을 단단히 조이고 있다.

마라토너 심재덕. 그에게 정색이 없다

"수출은 할 수 있지만 완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외사에게 들었던 진단 결과, 그는 그때 결심했다. 그는 1998년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라톤에 임문하게 됐다. 수술하지 않고 살이보겠다고, 호를 이라도 먹던가게 되겠지라며 달려들었다는 결심을 굳혔다. 좋아질 거라는 어떤 보장도, 주변의 사해도 없었지만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받았던 약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일단 뛰었다.

처음에는 세수를 할 때마다 코피가 흘러 나왔다. 땀이 낫는 것인지 무리가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그래도 이 길만이 자신을 살릴 길이라 생각하고 뛰었다. 폴코스를 100원 완주하는데 모와 14년, 바보처럼 일할 벌리고서야 숨을 쉴 수 있었던 그의



계합량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주기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해외 원정길에 오를 때면 혹시 달이 날까 주변 선수들에게 꽤 간 음식이 상했는지를 물어가며 식사를 했다. 그래도 그는 혼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스스로 준비하여 세계 각국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통하지 않는 언어와 후각상실 등은 그에게 정색이 되지 않았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공항에서의 숙박도 미다하지 않고 그는 무흔히 대회에 참여했다. 달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발뽀이 300개 이상 빠지는 고통도 감내하게 했다. 지금도 그의 발뽀는 멀쩡한 것이 없다. 그래도 그는 아직도 마라톤에 목이 아프다. 마흔 여섯의 나이지만 그는 위험처럼 달리기도는 전 다섯 살까지는 계속 스스로 기록을 깨고 싶다고 말한다.

"원 다섯 살 이후요, 그때부터는 죽는 날까지 즐겁게 달리고 싶습니다."



지킬 수 없는 목표는 가라! 2014년 나의 목표는?

우리반 세대공감, 탐재2 선태3반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 나만의 목표 하나씩을 품었다. 처음엔 누구나 '올해는 할 수 있어'라고 주문을 걸지만 현실감이 되기 쉬운 새해 목표. 매년 목표가 세우는 단골목표부터 어린 시절 목표까지 세대별 새해 다짐을 들어본다.

새해 소망 리스트

김정민 직장인 숙녀대리 주선
공유재 4살, 세상에 나오지 못하러 자꾸(사태) 무서워 하는 아이였으면
오명석 만사如意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
이종구 새 지름기(만원) 4살이 케이크를 하고 싶어서
김7살 초중일 케이크 만들어 4대 분할이 되고 싶어요.

1. 띠에 단골 목표는?
2. 실에 요란한?
3. 착실함을 벗어나는 방법은?
4. 어린 시절 세웠던 목표와 달성여부는?
5. 2014년 목표는?



2014

20~30 대

연애와 결혼? 다이어트!

최현규 실업주기, 그리고 여자친구 만들기(기속)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맘을 잘 안 찜겨 먹게 돼요. 일에 빠져서 신스라 아직 여자친구도 만들지 못했구요, 주위 사람들에게 선전포고통 해서 일러야 판수되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자족 석려 100 만에 들것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1등까지 짜먹어요. 2014년에는 봉사활동 1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도성철 초등학교 때 친구 1등 한 번 해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달성은 못 했어요. 사실 가가이도 못 갔는데 혹시 5등 정도는 했다고 싸우면 안 돼요? 올해는 꼭 용감자격을 받고,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습다. 00야, 니랑 결혼해줄래?

40 대

아이들과 현실업무, 자인들 앞에서 연주회를 꼭 하였습니다

최현철 지금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였는데, 1년 1내 쫓아다녔더니 결국 성공했습다. 결혼한 지 13년이 지

났는데 두번 아직도 신혼이예요. 올해는 아이들도 가져도 10대 생산 일주를 하는 것이 목표습다. 꼭 이를 갑니다.

신승호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활동을 해서 기타, 베이스, 플루트, 색소폰 등 다방은 약70가 많은 편이예요. 가족과 친구, 회사 동료들 앞에서 직은 연주회를 여는 것이 해마다 세우는 목표인데 기회가 없었요. 현재 25세의 목적으로 색소폰을 들고 싶으니 2014년에는 꼭 색소폰 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20~30대 사무들이 저처럼 취미를 한가 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다.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거든요.

50 대

재미와 취미, 세배에는 즐겨보겠습니다

김신서 아이들 댄 보고(가)는 것이 있었지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습다. 대부분 초심(사람)에 몰려다쳐 아이들이도 키우고 미안할 줄 실게 되었으니, 이번하면 꼭 달성한 것 아닌가?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근무, 군원을 추천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는데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거든요.

홍경준 2014년 첫 번째 목표는 골프 배우기예요. 주변에 골프 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만 안 치니 소외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들 잘 보내주기입니다. 제자 장승준이 27살, 24살인 아이들이 빨리 장가들 가서 제 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회사는 스스로, 격자, 취미생활 등을 공유하는 2,200여 명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밑착 동호회에서는 흥미진진한 동호회 미묘미묘를 밑착 하였습니다.
 글: 이성이 주부기자 / 사진: 장흥식 사진가(장흥포사친동호회)



득우(得好友), 득인화(得人和)!

바둑 동호회

두 수를 얻기 위해 때로는 한 수를 내어주어야 하고, 승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넷'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바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 주변과 화합하는 것을 값진 40년 목표 세운 사무들에게 바둑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갑오년 첫 수는 바둑 동호회에서!

'바둑 동호회' 회원모집

가립대상 저질 첩자사 관계 없음
(책이 없으신 분 환영, 어드레스 부재)

연락처

회장 김준석 사무(30대1)
010-9689-2829
사립 박용일 사무(50대1)
010-9689-4000

첫 수가 중요한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여는 출발선에서 첫 수를 놓으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이들이 있다.

장승포동 육원아파트 상가 2층, '바둑 동호회' 회원들이 동맹이 모였다. 진지한 표정으로 좋은 수를 두기 위해 침묵 속에 벌이는 생생한 대결. '딱딱' 바둑돌을 놓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실내는 긴장감이 팽넌다. 바둑을 두며 길고 긴 대화를 나누는 듯한 호프러질 없는 회원들의 모습은 4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회사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바둑판 위의 전투가 우리네 삶과 닮았어요. 그 속에 인생의 권리와 통하는 법칙이 들어 있어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명예회원 이원달 사무(삼목기업)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므로 첫 수를 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귀띔해 준다. 뒤이어 동호회 사립인 박용일 사무(생신학원)는 바둑의 심계명인 '취기심결'을 통한 단란을 바둑의 정점으로 꼽았다. 바둑을 함으로써 하나의 세계를 더 가지게 된 동호회원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고 바둑의 매력을 알리었다.

예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적인 분위기

'바둑 동호회'는 80년대 중반 그룹사 바둑대회의 개인전, 단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들이 한데 모여 결성했다. 이후 크고 작은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30년 전통을 가진 경남 최강팀으로 우뚝 섰고, 각종 배스볼을 통해 회사의 이름을 알렸다.

동호회가 특별한 이유, 회원들은 모두 동맹의 절친함과 가족적인 분위기, 분위기가 메이커도 마다 않는 화장이 있어 때 묻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바둑처럼 예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들의 답변이다.

인명 두뇌 스포츠라 불리는 바둑은 지혜예행과 두뇌개발, 인내심 단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를 배울 수 있는 격자 있는 스포츠이다.

2014년 새해의 사무들의 총명함을 기원한다. '바둑 동호회', 율 한해도 바둑을 통해 봉사활동도 하고 타사사와 교류전을 통해 함께 회사를 빛내며 가업을 원하는 사무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

득우(得好友), 득인화(得人和)를 함께하고자 하는 사무는 동맹의 문을 두드리보기를 바란다.



대우조선해양 40주년 역사는 백오년(百五十年)이 시간(時間)이고 백오년(百五十年)이 도정(道程)이다. 그 도정(道程)은 시간과 도정(道程)을 눈물과 지혜와 열정과 극복(克服)함으로써 우리는 끝내 목표(目標)의 40주년을 찬란한 역사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두가지에 찬란한 역사(歷史)란, 허자(許者)만 있고 무자(無者)는 안 될. 시간과 도정(道程)을 뛰치는 순간(瞬間)으로, 물과 눈물과 열과 진(眞)과 사랑(愛)이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

콜리엇 크레인, 대우조선의 당당한 자부심으로 우뚝 서다

(생산의 기반을 세우다)

1982년 초가을의 어느 날 오후 4시, 박 반장은 지난 해 10월 설치되어 육포만의 상징이 된 높이 104m, 폭 206m의 초대형 크레인인 콜리엇 크레인 앞에서 있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까마득한 높이의 콜리엇 크레인을 울려대고 있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오늘날은 지난 해 가을이 거대한 덩치의 콜리엇 크레인이 설치된 이후 가장 큰 불룩인 탱크 데크 하우스 수퍼 모듈을 탑재하는 날이었다.

조금 전 그는 리프팅 설계를 담당한 생산지원부 직원에게 연락해서 야간 탑재 일정을 알려주고 현장에 나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들은 이미 리프팅 리그에 대피 놓은 상태였다.

오늘 저녁 탑재 되는 불룩은 그동안의 소형 불룩과는 차원이 다른 650톤의 초대형 거주부 불룩이었다. 문득 박 반장의 머릿속에 지난 여름이 콜리엇 크레인인 1번 브릿지 거더를 설치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날처럼 온몸의 신경이 저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로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1번 브릿지 거더, 폭우 속에 거대한 물을 일으켜 세우다

1981년 7월 10일 밤 10시, 대우조선 전 임원과 1번 브릿지 거더의 설치를 맡은 대우조선 기술진들 그리고 설계를 맡은 독일의 크루스 관계자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서서히 빛

자며 들어올려지기 시작한 거대한 구조물을 숨을 멎은 채 바라보고 있었다.

콜리엇 크레인인 워낙 크고 긴대다 낮에는 태양열의 영향을 받아 수축과 팽창을 하게끔 정밀한 설치가 힘들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설치 작업이 밤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7월 10일 달빛은 현장 직원들이 모든 설치 준비를 마치고 떠나게 하는 강풍이 멎기를 기다린 지 몇새째 되는 날이었다. 결국 장일영 소장이 결단을 내렸다. 전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제저장 피복트는 맞속에서 50분, 원치 1대와 25톤 원치 2대 그리고 38mm의 와이어 로프 40여개가 의해 1500톤의 1번 브릿지 거더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날 리프팅 작업을 위해 대우조선 중기부의 모든 장비가 동원되었고, 50톤 킥 크레인의 조영시동을 비롯하여 각종 조영장치가 동원되어 현장을 대낮처럼 밝게 만들었다. 설치작업은 천이로 계속 이어졌다. 다음날 새벽 3시쯤에는 어디선가 학 세 마리(학) 작업현장의 하늘 위로 날아와 주위를 선회하여 인간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역사를 통한 한참 지켜보다 돌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11일 오후 6시, 20시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거더가 수직으로 당당히 서서 그 위용을 드러냈다. 야간작업으로, 그것도 퍼붓는 폭우 속에서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대우조선 기술진들을 향해 허를 내뽐르던 독일 크루스 관계자들은 결국 그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박 반장은 폭우 속에서 100m가 넘는 거대한 기둥이 빛을

반으며 서서히 일어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다. 같은 달 23일 2번 거더도 마찬가지로 철야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설치가 끝나고, 1981년 10월 17일 마침내 상징에 등경하는 괴력(怪力)의 사나이 콜리엇(Colibri)에서 이름을 따온 900톤의 캔트리 크레인이 완공되었다. 독일 크루스의 설계와 ACE 텔레린킨사의 제어기술 그리고 대우조선 기술진들의 제조 및 설치 기술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쾌거였다. 900톤의 장광물을 91.4m 높이까지 단숨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초대형 크레인인 장대한 규모와 위용으로 대우조선의 자부심이자 흑표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신화가 되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탑재 작업을 지휘하는 박 반장으로서의 때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작업이었지만 오늘날은 그동안의 어떤 날보다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운반해 본 적이 없는 무게 650톤의 탱크 데크 하우스 수퍼 모듈을 탑재하는 날이었다.



박 반장은 골리앗 크레인의 조종실로 올라가서 조종사를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무전으로 확인을 해도 되는 일이지만 박 반장은 가능하면 조종사를 직접 만나 바람 상대나 기타 조건들을 점검하고자 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뒤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90m의 높이를 오르는 데는 엘리베이터로 2분의 시간이 걸린다. 지난 1년 동안 술하게 오르내렸지만 태편 앞에 곧 일 때문에 2분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제1도크의 풍경이 저 아래 카마득하게 펼쳐져 있다.

미니어치처럼 축소된 그 풍경은 내리다보니 숨을 한 번 크게 들이 마신다. 바람은 다행히 잠정하다. 초속이 18m를 넘으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좁은 계단을 내리거나 2-3 킬 정도의 조종실에 언제나 들쭉날쭉 조종사 강 구조가 없어왔다. 국내에서 몇 병명인 크레인 조종사로 작년 크레인 완공과 함께 스카우트 되어 대우조선의 서구가 되었다. 이미 시선에 다 전달하고 확인한 내용이지만 작업계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 구조에게 전달하고 확인한 후 조종실을 나온다.

저녁 7시가 지난 시각. 이미 작업 현장 직 밀리로는 어둡

내려앉아 있고. 거대한 조영들이 현장 주위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 이윽고 박 반장의 무전신호로 골리앗 크레인의 후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블록과 후크 사이의 와이어 도르가 켈렁켈렁 힘을 댄데도 블록이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살짝 놀란 박 반장이 블록 위로 부리나케 쫓아 올라간다. 리프트 실계 직원도 그 뒤를 따른다. 문제는 바로 발견되었다. 블록 상부에 20% 정도의 리프팅 리그가 붙어있는데 리그의 높이가 일정 범위 이상 크게 다를 경우는 승탑 와이어 길이를 다르게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충분치 못하여 블록이 들리기 전에 체인 블록이 블록 뒤 몸체에 붙어 버린 것이었다. 박 반장은 승탑 와이어 한 개를 교체하게 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했다.

이제 거대한 블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찌저찌서 요란한 굉음이 들린다. 그리고 장면에서 이따금씩 블록이 전체 중심을 맞추기 위해 옆으로 서서히 움직인다. 박 반장의 피가 마른다. 결국 땅으로부터 1m 정도 이따금씩 순인 블록이 멈추며 요란하던 굉음도 멎는다. 박 반장은 이제 세 번째 기둥이라는 징계를 이룬 것이다. 설계원과 운반요원들을 데리고 블록 안으로 들어가 둘러본 정태에서의 블록 상황을 체크한다. 눈에 띄는 이상은 없다. 블록에서 내리는 박 반장은 조종사에게 무전을 보낸다. 이제 그의 몫이다. 이제는 총본의 들어 올린 후 태워 위치까지 골리앗 크레인을 주행하여 제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결국 650톤의 초대형 탱크 모듈 탑재 작업은 밤을 꼬박 새우고 통이 불 무렵에야 끝나고 있다. 작업 중 골리앗 크레인의 트롤리 기어 장치에 이상이 생겨 이를 수리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세벽 어영모로 뭉개 물들어오는 제1도크를 배경으로 제 자리를 찾아 당당하게 앉아 있는 650톤짜리 탱크 모듈을 바라보며 박 반장의 입에서 미소와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밤을 꼬박 새우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온 운반요원 후배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작년 여름 골리앗 크레인의 1번 기둥이 거대한 몸체로 일어선던 순간이 다시 떠오른다. 남들은 감히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벅찬 느낌. 그때 느꼈던 감동의 전율이 또 한 번 온 몸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지내온 몇 년은 대부분이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해내 온 날들이었다. 아무 것도 없던 작은 어촌 마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고, 그곳에 또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들을 세우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신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제1도크 저 너머로 태양이 붉은 열광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저 붉은 태양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박 반장의 가슴 속에도 퍼지고 있었다.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낼 또 하나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다.



골리앗 크레인 대물로 설치

위 사진은 골리앗 크레인의 대물로 설치가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로켓엔진차 버퍼대로 쓰이는 높이 130cm의 지주를 사용했다. 지주 속에는 5톤을 담당해야하며 설치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부 1m 정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력과 안전은 보양전기가 최고, 목표를 향해 던져라

보양전기 3617호선 포설1반

보양전기는 방명대 대표를 필두로 총 121명이 근무하는 든든한 협력사이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의 책임장장급을 담당한 보양전기는 오묘적인 실력과 팀워크로 협력사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힌다. 방 대표가 세배를 맞아 사유물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양전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방명대 대표가 오으며 등장하자 사무들의 막소리가 이어졌다. 한 명 한 명 약속을 나누어 함께한 자리. 베트남, 미얀마 등 외국인 사무들도 눈 빛 중에 만난다. 방 대표와 사무들은 오랜만에 함께 하는 자리라 신나는 환한 디스캐임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관망 돌린다. 활로 던져야 하는 숫자 중 합산이 가장 높은 숫자를 맞힌 사람이 이기는 게임. 두 번씩의 기회 끝에 통칭자 두 명이 나왔다. 미얀마에서 온 효민과 최승우의 재대결. 결과는 효민의 승리로 끝났다. 김포태 대표가 최효민을 벌금 들어오며 승리를 축하했다.

며뭇백한 분위기는 뜨끈뜨끈한 손노릇과 핫베를 산물로 진정하여 온 훈화제 마무리되었다. 게임 후 출출함은 피자과 치킨을 먹으며 달소나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방 대표가 먼저 골라보 건배사를 제안했다. "보양전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보양전기의 힘찬 함성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보양전기가 2014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아내와 인연에서도 보양만이 하는 기업인기를 버릴겁니다."



드림십 분야의 실력자, 1호부터 주도하다

드림십 분야의 실력자 보양전기. 보양전기는 드림십 1호부터 시작해 19척 정도의 드림십 건조에 참여했다. 실제로 보양전기가 참여하지 않은 드림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방 대표는 감각적 반응이 있는 3617호선 포설1반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칭찬했다.

"사장이야 반장이 잘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산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 일해 준 덕분에 해양공사 중 드림십은 보양전기가 아니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보양전기와 착업을 하려고 경멸을 하고 있어 대표인 저는 행복함 고만에 베풀게 합니다. 제가 이런 고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여러분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방 대표의 칭찬처럼 실력만 아니라 안전과 시간 지키기에도 모범을 보이는 보양전기. 보양전기가 2005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모범의 중심에 보양전기 사무들의 숭신수명이 신명했기 때문이다.

오랜 연의 자리라 그런지 모두들 허심탄회하게 대표와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었다. 베트남에서 온 뉴에반공 사무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회답했다. 오늘도 자리에 대해 감사하는 소감을 전했다. 방명들은 올 해 이야기 할 사무들이 점심이후 축사의 약속을 보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위할 줄 아는 보양전기.

마지막으로 방 대표는 2014년의 목표와 방향성이 잘해준 사무들과 공유하겠다고 주를 날베를 열려라에 인연과 긴장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영원한 무죄를 책임적으로 남도목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양전기 사무들은 회답하며 보양전기가 20살, 30살이 되는 날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예진이와 예설이, 가족달력의 모델이 되다

김희태 사주(배임진출실제)2부 아내에게는 전사같은 두 딸이 있다. 계통유치병 아픈 딸인 예진이의 예진이의 하나뿐인 동생 예설이. 김 사주 부부가 거쳐 온 지 2년. 바쁜 업무로 할일에는 자는 일출만 보는 김 사주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달력 모델에 도전하기로 했다. 2014년 가족의 사계와 함께 간직해 볼 김 사주 가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촬영장은 훈훈한 기운이 가득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찍다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김 사주 부부는 2년 전까지 김희태 장남에게 생각했다. 가족도 온 지 이제 2년. 지난 해 6월, 예설이 둘을 맞아 사친을 찍은 이후 가족 사진은 처음이다. 첫 촬영은 봄에 맞게 티셔츠와 드레스를 입고 촬영에 들어갔다. 실제로 4월과 같은 계절이 넘어갔다. 김 사주 부부, 아이인 유경희 씨가 화장장 시작하고 모두 본격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드레스가 불편하지 예진이가 재를 썼다. 예진이는 오히려 예쁜 드레스를 입어서 그런지 가을을 보여 만족해 했다. 건강한 기색이 역력한 김 사주 가족의 첫 촬영.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 모두의 표정이 자연스러워졌다. 수영복을 입은 여름 맛을 먹고, 소풍이라도 온 듯 캐주얼한 가을 복장. 마지막으로 두 명의 선녀와 두 명의 무용수가 된 겨울 촬영. 모델은 힘들다며 가족 모두 지쳐 했지만 사슴 머리띠가 마음에 드는 지 예진이는 모자와 머리 띠 등 겨울 소품을 챙기기 바빴다. 차년 둘째 예은 사친들과 함께 가족달력으로 탄생할 모습이 촬영. 김 사주는 2014년 가족달력으로 언제나 함께 하길 기대했다.

베러싱 많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김 사주의 아내 유경희 씨, 주말이면 부모 예진이와 김 사주가 데이트를 한다고 한다. "신색도 하고, 일화도 보고, 놀이에도 가고 예진이와 딸만의 데이트를 합니다.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야 아내가 편해서 가능 하면 하루 종일 예진이와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평일에는 살거지 정도밖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며 김 사주는 아내에게 마음을 전했다.

"주말에는 유치원에서 걸한 가정의 날(Family Day) 아바탕 영화를 보거나 해요. '전애 스미프를 봤는데 아바도 재미있어?'라며 묻는 예진이. 카이온 목소리와 눈웃음이 김 사주는 그지 못을 만난 듯. 장수에 있을 때는 외할머니가 많이 봐주셨다는 예진이. 외할머니 얘기가 나오자마자 보고 싶고 웃음을 터뜨린다. 함께 한 시간이 길어 외할머니에 대한 예진이 각별한 예진이. 촬영한 사진과 달력이 나오면 할머니에게 꼭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 사주 가족의 새해 소원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 태어난 대구계열으로 예설이가 아왔던 기억이 있는 김 사주는 가족 모두가 올 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큰 딸 예진이에게 새해 소원을 물어보니 "이 새장이 다 분홍, 분홍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은근슬쩍 키득키득 웃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알마가 말할 새도 없이 먼저 대답했다.

"알마 새해 소원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제는 거예요"라고 아무렇게 말하는 예진이. 예진이의 귀여운 대답에 김 사주 부부는 웃음이 터졌다.

알모도 베러싱 많고 당당한 사람으로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다는 김 사주 부부. 새해에는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2014년 달력에 좋은 날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본다.

8 August

10 October

12 December

예진이? 예설이?
우리야 2014년
가족달력
모델이됩니다.
-영민, 예설

2014년 3월호에서는 거제도 유명 펜션 마시텔미는 1박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근속 30년 이상 사주는 간단한 사진과 함께 응모하세요.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비용 잔해를 지원해 드립니다. (☎ 기입문의처: 055-735-9540, goodnews@dmee.co.kr)



이름이 담긴 편지를 배달해 드립니다. 가족과 동료, 친구 등 가까이 있어 보내며 할 수 있는 우체통 두근두근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일, 특수급 우우가/ 사진, 찬성진 사진가(이름다들다카네살) / 평소처럼, 제재해서주세요!



덕희에게-

웃어준 고마움은 살아갑니다. 길은 멀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지는 절부지 같은 당신 모습에 '또다시 사랑하지는 않겠나?' 걱정이 일선 척도 있네요. 하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가세로 내려와 인생나 한한 살길로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이 있기에 요즘은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힘든 일조차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도, 당신의 웃음소리에 당당히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이요. 관계 단절된 일을 열어 주고 웃을 수 있게 해 주시길 고마워. 어떤 이름이든 다행히도 우리 술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남은 인생, 당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해주실게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인생 축약에서 우리 처음 만난 일차를 회상하며 '잘 행복했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합시다. 사랑해

37년의 시간을 넘어 첫사랑의 꽃봉우리가 만개하다

류택도(블록물류) 사우 부부

37년 만에 류택도 사우는 '하락' 그녀를 만났다. 가난의 풍속에서 가능하게 되고 있는 그녀를 느끼며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해본다. 힘 세 없이 돌아가는 TV카메라도, 이금희 아내로서도 이미 다른 세상일 뿐 오직 첫사랑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5월 8일, 송덕회 측은 KBS1 아침마당의 '두 번째 약속 있습니다'를 시청하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3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본명 그대로다. 가슴속에 잔적한 스물 두 살의 청년은 어느덧 세월의 흐름에 순응한 중년의 모습으로 브라운관 속에서 웃고 있다. 멀리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난생 처음으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5월 29일, 37년만에 두 사람은 만났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짧은 시간동안 서울로 가던 비둘기호에서의 첫만남에서부터 삼정공원에서의 헤어짐까지 2년여의 기억이 거짓말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서 받은 100통의 편지, 생일날 개구리인형을 선물했던 기억 등이 아련한 첫사랑의 감정과 함께 재복색채 떠올랐다.

꿈같은 만남, 그리고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두 사람을 하늘이 안타까워해서일까? 아니면 첫사랑의 그리움이 다시금 인연의 다리를 놓아준 것일까?

방송을 마친 후, 류 사우는 덕희 씨를 거처로 초대했다. 가벼운 여행으로 생각했던 차승로는 멀리 로마가 행복을 품는 류 사우의 생활은 본 덕희 씨는 그를 위해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에 그대로 거처에 눌러앉았다. 대천에서의 생활을 미련 없이 털고 두렵지만 실패는 타협에서 삶을 시작했다. 조전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는 생면부지의 땅이었지만 살아있는 헌법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첫사랑인 그가 여기에 있었기에 용기 낼 수 있었다. TV방송을 통해 재회한 그들은 현재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아직은 너무나 사랑에서 결혼하지 않았다. 스무 살의 사랑보다 전환 마지막 사랑을 즐기고 있는 아들 부부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37년의 시간을 함께 즐기고 있다. 드라마틱한 행복이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경치 좋은 카페에 마주앉아 차를 마시고, 맑은 장소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다. 매일 손을 잡고 향하는 마지막에서 느껴지는 바람결의 미세한 변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다.



택도 씨에게-

먼 길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짧은 길이었으나 TV에서 보지만 알지 못했는지 일곱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그리고 만나고 싶었는데 이마도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나 봐요. 지금도 후회하게 되는 건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예요. 택도 씨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물어 다녔소. 100만번 편지를 받고 남편 등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공연편지에 앉아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브라질 버섯이 집으로 가져와던 일 기억나세요? 그때 저를 위해 받은 상처와 살면서 받은 상처까지도 택도 씨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행같은 여행답고 후회 없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택도씨를 롤러스키에서는 사우와 사우 가족이 후원하는 김정은 사진은 김정은입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찾아하신 분께는 5천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7기독교신문 055-735-9540, goodnews@dmc.co.kr】

요즘 유행하는 핫한 운동? 살펴보고, 알아보고, 시작하자



새해 목표에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몇 년째 방치돼 있는지 모르겠다. 최신 소릴 트렌드는 따라가기도 정신 없이 드라마는 섭렵해도 운동은 매년 핵심시업을 기점으로 착실 한 달을 못 채우고 사라진다.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요가 매트만을 싯내 운동기구들로 알고 있다면 트렌드에 눈을 떠보자. 주워서, 더워서, 비해서라고 핑계되는 건 이제 그만. 2014년에는 트렌드에 맞는 운동기구를 새롭게 사려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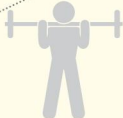
생소하지만 전문적이고 세분화되다

크로스핏, 플라잉요가, 웨들보드, 아쿠아스피닝 등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운동들이 요즘을 자장받고 있다.

운동하는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그만큼 운동 기구들도 전문화, 세분화됐다. 유산소 운동이 중심이던 운동시장에서 이제는 스몰로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운동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마르고 날씬한 몸에서 이제는 근육있고 탄력있는 몸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2007년 개봉한 영화 '300'은 그 트렌드를 바꾸는 하나의 타닝포인트였다. 처음에는 CG가 아닌 가의실렸던 케타르 버틀러를 비롯한 300의 출연배우들은 살체로는 영화 출연을 위해 혹독한 육체 단련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케틀벨이라는 장비가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손잡이가 이상한 아령'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운동기구, 케틀벨은 이름처럼 주전자(Kettle) 모양의 중(Dumb)이다. 살체 조절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손잡이를 잡고 휘두르기가 좋게 되어 있다. 케틀벨이 피트니스 시장의 뉴 트렌드로 각광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 형태와 쓰임 자체가 실 내포한 과학적 되어 있기 때문이다. 케틀벨은 손에서 놓지 않고 반복해서 '휘둘러서' 저항을 만들어낸다. 기구의 무게중심이 손잡이에서 멀리 떨어진 무게 추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빠르게 휘두를수록 원심력이 커져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된다.



저자 소개는 (C)이태희 진화(명운인))의 작가로 인후 본연의 생활운동을 위한 EVO-이태희를 펴내고 있다. 현재 서울 강 구동에 위치한 기능성 프랜차이즈 전문 센터 '엑스모 프랜차이즈'에서 실체 운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C)이태희 진화(명운인) 2013년 12월 28일 아티스트출판사, 출간 예정7가 있다.



전문가들이 개발해낸 새로운 도구

명절이나 원양사에게 왕초를 상으로 주던 한국처럼 불고기야에서든 민속놀이 혹은 자에게 양이나 송아지를 주는 전통이 있다. 이 때 상으로 받은 가족을 어께에 둘러매는 장면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된 것이 불고기안 맥이다. 레슬링 선수 출신이요 코치이기도 한 이태희는 레슬링 선수들을 위한 신개념 훈련요이 이 책을 개발했다. 한국에서는 처음에 태릉 선수촌 레슬링 선수들을 중심으로 사용됐지만 점차 피트니스 시장에서도 잠재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활 자체가 가족이 라피로 만들어진 기존의 운동기구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불고기안 맥과 함께 국내에서 종합레슬링기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이태희는 익숙해진 지극히 운동법 이 태블로프이다. 15m 길이의 밧줄을 흔들 때 생기는 웨이브를 이용해 코어의 발달과 함께 특히 상체의 근지구력, 신체지구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UFC 챔피언(케인 벨라스크스, 조르프 생 페르)을 비롯한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은 거의 빠짐없이 이 훈련을 하고 있어 이들의 영향으로 국내에도 보급됐다. 알뜰 보급된 단순한 밧 줄 운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격투기 스킬을 뽐 내는 것만 운동의 전을 꼭 빼놓는다.

물리치료, 그 이상의 효과

기동이나 원봉에 간 강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몸을 연결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시스퀀스 트레이닝도 최근 인기이다. 출발은 재활과 물리치료였다. 불안정한 줄에 몸을 의지하려면 가벼운 버디고 시 있는 것만으로도 몸 구조적에 상당한 힘이 들어간다. 이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 각 부분의 근력, 협력 및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굉장한 좋다. 특히 자세 유지와 척추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단련하는 데 필수 효과적이다. 시스퀀스 트레이닝의 원조인 '케드드'는 예전에 부상자나 쇼미어미 환자들 글중에서 뛰어난 시키던 도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사용,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운동부족으로 몸 곳곳이 멍멍한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물리치료를 받으므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폼롤러도 비슷하다. 폼롤러는 중앙이 가늘고 충격 흡수력이 좋은 고압 스펀지로 만들어진 도구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직접 마사지와 스팀마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체형교정이 필요한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헬스 트렌드와 각종 수기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폼롤러는 원래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에서도 빠질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꾸불꾸불 해안선에 촘촘이 박힌 보석들

문화칼럼니스트 이명석이 소개하는 거제도 명소들

논이 시린 쪽빛 바다. 바람도 머무는 다정한 언덕, 통백꽃의 흰시미 대님, 이름 모를 아열대 꽃의 창문... 우리의 섬 거제도에는 온갖 보석들로 가득하다. 때문에 수많은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에서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제 영화와 TV에 등장하는 거제의 보석들을 만나보자.



이국적인 풍경만 만나다

영화 <종려나무 숲>에서 북회 반포로 거제도 선소에 내려온 김민준이 숲에 취한 김유미를 입고 집으로 데려다주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내가 처음 본 공곳이의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예구마을 '공곳이'의 이국적인 종려나무숲이다.

영화는 이 종려나무에 열린 3대의 애뜻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공곳이는 사유지 농원으로 수십칸 건의 노랗 락에 종려나무, 선유화, 동백나무, 수련화, 근자란 등 수십종의 식물들이 자리잡게 된 곳이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 이곳 해안 빌라

에는 영화 속에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낸 노란 수선화가 만발한다.

다시 남쪽으로 드라마 보코스를 이어가면 도장포가 나온다. 여기에서 나무 계단을 따라 언덕에 오르면 캣바위와 동대가 우뚝 선 포구가 보이고, 바다 밑에 노파자를 돌린 화통의 풍경이 흰눈에 들어온다. (<비의 화환>, <최원목마>) 등의 여러 드라마와 CP의 촬영지로 유명한 '머루의 언덕'이다. 드라마 <최원목마>의 타이틀 물에서는 부도 없이 활거울 인생을 살아가며 하는 아이돌이 이 언덕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바람이 많은 곳이라 봄에서 가을까지 따뜻한 날씨가 많을 때 찾는 게 좋다.



자연친화적인 장소들 찾다

<연남전> 팀이 <겨울연가>의 여주인공 최지우와 대포 크루즈를 타고 들어간 곳이 장사도다. 이곳은 자연친화적인 해상공원으로 폐교와 빈 방을 활용해서 공원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옛 산길을 보수해서 만들어놓은 아기자기한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귀이쉴 조각상, 부지개 대님, 분재 등의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연남전>에서는 아미공원장이 주요 촬영지로 등장하는데, 종종으로도 노이 올라가 있는 컨정방울 벤치와 그 위에 있는 기대한 두사람들이 인상적이다. 외에도 규모가 크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재가이 있어 사시사철 가을 만만 곳이다.

요즘은 정돈된 관광지보다는 좀더 자연적인 곳을 찾는 경우도 많다. 여차 해수욕장, 구조과 해수욕장 등 거제의 비경을 담은 <1박 2일> 팀이 들어간 곳은 저서도다. 별명이 동백섬일 만큼, 남해의 섬 중에서도 동백의 묘목수, 수평 등에서 터의 추풍을 볼 수 있다. <1박 2일> 팀이 가장 미션을 위해 달렸던 좁은 길은 섬 양쪽의 동백 숲에서 마르르 오는 방향에 있다. 마르르 남쪽 끝이라는 도로로, 철책 위에 해운들이 고고히 서 있는 곳이다. 그 너머는 쪽빛 바다가 펼쳐져, 남해에서 근처에서 남시에 빠져 있는 강대물들을 만날 수 있다. 동백의 살인만큼 11~3월이 제일인들, 각 시기마다 꽃이 맺고 피고 떨어지는 모습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

섬을 둘러싼 또 다른 섬으로 가다

거제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 드라마 중에는

서 역시 가장 유명한 작품은 <겨울연가>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시력을 잃어가는 배용준은 최지우가 설계한 '불가능한 길'을 짓고, 최지우가 찾아와준 영의 대회를 한다. 그 결정적인 장소가 '외도 보리나'이다. 외도는 섬 자체가 잘 관리된 사육원이다. 이 국적인 열대 야자 숲, 하드 모양의 대나무 터널, 해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권디 정원, 그리스 섬 같은 바닷가의 하얀 대리석 장식물.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계획하는 '불가능의 길'을 정원 뒤쪽에 있는 리스하우스에서 촬영했다. 외도는 도장포를 비롯해 6군데 포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볼 수 있는데 드레즈운 어류보다는 4~6월이 방문하기 좋다. 5월은 돌돔이 만개하고, 6월이면 아자수가 새 모습을 드러낸다.

갑작스런 파도와 바람으로 배가 끊기자 첫사랑이 시작된다. 차태연, 송해교의 <괴담주의>는 소백물도에서 촬영되었다. 이곳은 본 섬에 작은 동대섬이 이어져 있는데, 바람 때에 열리는 몽돌밭길을 통해 오갈 수 있다. 동대섬 현판에는 아름다운 해돋이 숲을 이루고 있다. 사실 거제의 영화와 드라마 현장을 찾기 위해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조선소 자체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종려나무 숲>, <세월 캄보디아> 이어 최근에는 박문호 감독이 제작자로 나선 영화 <해무>가 조선소를 배경으로 촬영해 들어갔다. 앞으로도 거제의 비경만큼이나 일만인들은 잘 모르고는 조선소 곳곳의 풍경을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적지 않으리라.



사우 및 사우가족들에게 유익한 사례와 제언이 담긴 소식통을 발행하여 전달해드립니다.
 ● 장수권 주무기자 / 사진: 심영호 사원기자(대우조선해양소식통부)

최고의 안전 지킴이를 찾아라! '도전 HSE 골든벨'



도전 골든벨에 참가한 고교생들의 뜻밖한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도전 HSE 골든벨이 사우 및 가족들의 열띤 응원 속에 힘있게 성행하며 마무리됐다. HSE는 Health, Safety, Environment의 약자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강, 안전, 환경을 뜻한다. 도전 HSE 골든벨은 사우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사우뿐 아니라 사우 가족의 건강까지도 생각한 회사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최고의 안전 지킴이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한 사우들의 힘찬 도전을 살펴보자.

두둥! 골든벨을 울려라~

가슴에는 배편을, 머리에는 알록달록 오색빛깔 모자를 눌러 쓴 200여 명의 사우들이 해피니스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도전 HSE 골든벨'에 도전장을 내민 본선 진출자들이야. 지난 해 10월부터 협회사를 포함, 4만 5천여 명의 사우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뿔친 것이다.

축하 가수의 공연,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물러간 가족, 동료들의 열띤 응원으로 행사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회사는 HSE 의식을 강화하고 '무사고, 무재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안전 지식 학습, 안전 눈높이 향상, 안전다짐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해마다 이 대회를 열고 있다.

대회가 시작하자 도전자들의 열광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드디어 첫 번째 문제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자신 있게 답을 적는 사우, 답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는 사우, 공란으로 비워두는 사우도 있다. 정답권을 울리는 순간 회비가 덧갈리며 머리카락이 튕겨 나뉘는 사우도 있다. 예상 밖의 어려웠던 1번 문제에서 60여 명이 대기 탈락했다.

문제가 계속 이어질수록 더 많은 탈락자들이 나왔다. 다행히 이어진 패자부활전에서 제3차인 2번과 4번도 총 17명이 최종, 재도전에 나섰다.

이제! 길 반장님! 최후의 1인이 돼주세요.

'골든벨은 우리끼, 느낌 아니까', '대량 ENG 6%의 전사, 골든벨 울려라 왔네!-', '우리는 골든벨 울리기 해이러행 가자'

등 다양한 플래카드와 응원구호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권은진(독산기업 정환철 사우 부인) 씨는 '아이 이해가 끝난지 모르겠고, 어쨌든 2시간 밖에 안 하고 공부했는데 1번 문제에서 탈락해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등으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라며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드러냈다.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여정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대부분의 도전자들이 탈락했다. 드디어 20번 문제에서 김승민, 송승복 사우 단 두 명만이 남아 우승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다.

종지된 승부를 가리기 힘든 가운데 승자를 가릴 다섯번째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에는 잊었던 답변을 한 2인. 정답이 발표되고 즉각과 함께 승 사우가 최후의 1인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노사 모두의 바람대로 올 한 해도 '무사고, 무재해'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해 본다.



DSME Focus



4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이뤄내

- 2013년 수주 목표 100% 달성

- 균형 잡힌 영업력과 고객지향적 마인드가 성공 열쇠

회사 4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해 조선해양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박시대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회사는 최근 미국 스톡피오 벡서사로부터 30만 톤급 VLCC 5척을 5억 달러에, 조다리아사로부터 1만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5억 4,000만 달러에 수주함으로써 2013년 수주 목표(130억 달러)를 100% 달성했다.

이런 VLCC 수주에는 원인이 내포해 있다. 회사가 1년 11개월 만에 VLCC 수주에 성공했고, 그 동안 중동형 원유운반선과 광물운반선, 가스운반선에 주력했던 스톡피오 벡서가 최초로 발주한 선박이기에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유가 하락과 선박용 과잉으로 침체했던 시장 속에서 회사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다수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수주할 수 있었다. 다양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다리아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인 이드에서 모두 건조해 2016년 중순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인도 후 모두 연해상선에 정기 운항에 운영된다. 또한 6척 이외에 별도로 4척의 추가 운선도 있다.

총 1만 6백여 척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이 선박은 확고한 파도와 운하에서 운항이 가능한 포스트-파나믹스급 컨테이너선이다. 또한 최적화된 선형 배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료 효율 성능을 낼 수 있는 선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회사는 12월 27일 일본 해운선사인 MOL로부터 26만 3,000여 규모의 LNG-FSRU(부유식 LNG 저장·차기)를 설비 1척을 수주했다.

이 선박은 세계 최대 규모인 LNG-FSRU를 제일 친환 에너지의 천연가스 저장용이며 동시에 최대 26만3천입방미터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 30일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설계 및



건조 사업 1척을 수주하여 유종의 미를 거뒀다. 먼저 대한민국 해군은 3단계에 걸친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호위함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번 발주는 배치-2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계약으로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처럼 회사가 4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최고 경영층의 오랜 영입 강요에서 나오는 고객 지향적 마인드와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만족하는 기술과 품질을 제공하려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대 기업 등 다수의 무망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11년 세계 최초로 건조한 40만 톤급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 드릴십, 반 잠수식 시추선 등 총 9개의 세계일류상품 보유

회사가 건조하는 초대형 철광석운반선(VLCC : Very Large Ore Carrier)이 산업융합지원부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은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연간 5,0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제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 이상 또는 판매 순위 5위 이내를 기록한 제품을 국가가 선정·지원하는 제도다. 세계일류상품에 지정된 기술·디자인 개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회사는 40만 톤급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포함, 2009년 반 잠수식 시추선, 2011년 드릴십 등 총 9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40만 톤급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은 회사가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건조한 선종이다. 첫 호선인 말레 프라빌 혹은 '내이베 아라데트', 마린 로그 등 유수의 조선 전문기업부터 2011년 올해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됐으며, JPS같은 보고서를 통해 'DSME가 건조한 40만 톤급 초대형 광물운반선(VLCC)은 경쟁국의 동종 선박보다 17% 높은 연료효율을 보였다'고 칭찬해 두었다.

2013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2013



2013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산업융합지원부 장관이 최영호(왼쪽)와 장영우(가운데)에게 기념품장을 하고 있다.

DSME News

종합 R&D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



세계적인 EPC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발돋움의 시작이다. 회사는 서울소재 미국산업단지 최종 입주예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도입을 추진해 2020년까지 미국에 R&D센터 3~4개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글로벌 조선해양 선체와 글로벌 해양에너지 센터 두 곳이 들어서게 된다. 그중도 사항은 "세계적 R&D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할 것"이며 "최후수입계약이 영속 기법으로 발주공사를 위한 시공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생의 반, 아이택부터 시작!

사우들의 성공적인 운척 후 인생 살게를 위한 2013 하트 타임 설계과정 교육이 마무리 됐다. 2014년 3년 차인 직원 26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전문직직과 인생의 의미, 문화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한 이해, 경건기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회사는 본격 디지털(제2관 5호)의 진로설계 단계인 58세로 구분해 체계적인 노후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클로브 명명식, 파예날 아드에서 열리



클로브 PPSO 명명식이 고해상도 해상, 보딩양륙로 시설, 양육료 대동원 등유엔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예날 아드에서 열렸다. 클로브PPSO는 현재 오일 플랫폼 모두 야식이고 오일 시스템 통합 작업

이 진행 중이다. 클로브PPSO는 1월 중순 파예날 아드를 떠나 양륙로 해상 유전에서 설치 및 시공전 작업을 거쳐 5월 31일 퍼스 도입을 생산할 예정이다.

중앙연구원 여사립의 '사랑의 바자'



이 진행 중이다. 클로브PPSO는 1월 중순 파예날 아드를 떠나 양륙로 해상 유전에서 설치 및 시공전 작업을 거쳐 5월 31일 퍼스 도입을 생산할 예정이다.

세브론, '무채색 작업 갑'

세브론사가 사우들 뱃사 프로토타입 출항을 기념하여 회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우들의 안전한 작업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 힘입어 2200t 사수 무채색을 달성한 것에 대한 고공으로 표시. 사 이드 매시, 콩트 라이저 등은 "남 한 간의 사고 없이 출항할 수 있었으며 도자중 모든 문제를 김사드라"의 "양공에서 이뤄지는 작업도 무사하게 마무리"라고 자랑 바인다고 말했다.

전직원들이 초월, 승인의 밤 행사 열리

회사 임직원 함께 했던 전직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내부조선해양인 승인의 밤 행사! 사우들 사우에서 열렸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초월기, 김광수 전 사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전직 임원이 참석해 전직 임직원과 회사 발전 향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그중도 사항은 "여러분 시가지에도 회사!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비한들에게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수 있는 불꽃의 DNA를 후배들에게 살아주소신 '덕분'이라고 말하며 영속 가능한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DSME 가족사



국제표준인증 'ISO 27001' 획득



심우공공업이 보안 및 정보 보호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표준인증인 'ISO 27001'을 획득, 한국 로이드인증원으로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ISO 27001'은 정보보호 조직체계, 정책,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으로, 이 인증으로 사우들의 보안 의식과 회사의 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2012년 11월부터 인증 준비를 위해 제작자 보안검정 규정, 도면 및 문서관리 규정, 유행성 바이러스 검사 등 28개의 보안검정 절차와 규정을 개정, 수립했다.

BOP 크레인 국산화 MOU 체결

심우공공업이 최근 세계적인 크레인 전문 회사인 KTE와 함께 BOP크레인 국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크레인은 해저 사주공에 설치되는 500톤급 폭발방지장치(BOP : Blow Out Pre Venter)를 임양하는 것이지만, 사주 작업 중 자동착수하는 척도, 표선, 자체중량이 60톤으로 구조와 기능이 단순하고, 체중이 연도되어 탑사이드에 설치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생산성증대 여류가 있어 국산화에 적합한 장비로 선정됐다. MOU에 따라 회사는 과제를 중점하면서 기술통계적 종합체제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 보트쇼에서 이지투스스르스티를 널리

심우공공업이 참관한센터에서 열린 '2018 국제 보트쇼'에 참가해 이지투스스르스티를 소개했다. 전시 기간 동안 150여 명의 방문객이 회사 부스에 방문했으며,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이지투스스르스티의 성능, 용도, 효용 등을 알리고, 이와 더불어 회사가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이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연구자금을 받아 이지투스스르스티를 국산화하는 국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 맞이 일부메이네이션 설치



메이네이션 호텔은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호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헬프데스크에 화려한 일부메이네이션을 설치,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호텔 침실부터 내부까지 는 화려한 경관조명을 크리스마스 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만끽 조성하고, 헬프데스크 야외데크에는 눈시발, 생애, 신년 등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조형물로 꾸민 포토존을 준비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조명이 점등되며, 메이네이션 호텔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은 물론 목욕객에게도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랑의 연탄 배달



신한기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한해를 저조하셨던 17구와 기초수급자 27구를 대상으로 연탄배달을 실시했다. 이날 아침 9시 45분, 배급동행회 등의 추위 속에서도 약 2000명의 인적들이 3개의 초로 나누어 연탄 15,000장 라면 2박스, 20kg 물

2포대를 전달했다.

조직원 대표는 "전날미들에게는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리 회사가 가장 먼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야 한다"며 따뜻한 마음이 모두 손잡고서라고 생각해서고 배급한 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운도시 그리스 이번 호를 읽은 느낌과 의견은?

● 아름다운 부부의 기사를 읽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 같다. 나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이 든다.

/최혜실 집안주

● 대우조선해양의 역사, 다양한 연대대의 사투를 이야기, 합체사 사투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타사에서 직장생활 중인 일지(의) 소식을 해운터를 통해 전해 드릴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운영팀 운영자분 편다영

● 일차 동호회 등 새로운 업무시간 외에 자사의 취미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강화에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특수산업안전교육 1차1명**

● 임무에 차지 않았는데 해운터에 그리스처럼 항상 신선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에도 날마다 재미있어요.

/사립대학사립팀 이명준

● 스타트업만 있는 대신 모든 사투들이

모이 많아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팀(주) 이호민 사무자주 노신실

● 1981년 3월 11일 임시승조이다. 한 달만 역사 화망에 출근할까 기다림을 참으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영그체 임시한 것 같은데 3d,9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세계 속에서 제일가는 대우조선해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지원팀원 최희동

● 가족 공간 대화법 기사 내용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가정에서 실천해보려요. 가족간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겠네요. **새해 길잡이**

● 가을 여행지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 비해서 미리 온 가을에도 주변 여행지를 공간이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여행팀 박민희

● 우리 아이가 참을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 체계적 지원도 있었해서 무



● '해운터'는 1월 31일 46호를 발행합니다. 46호는 '특별기획'을 소개합니다.

PICTURE PUZZLE 지난 호 숨은그림찾기 정답은?

골프스, 숫자지, 눈, 고추, 종이비행기, 지레다발, 부츠, 달베라피노, 점멸모

대우조선해양의 마스코트



숨은그림찾기 당첨자

대림기업 정승현(6006708)
신세기문진 권용태(411280)
장미문진! 박순택(253660)
가성태은 차영선(60301100)
자재물류 이봉근(3024281)
특수산업연구1 권정미(1008297)
해운지원팀 박건일(1004899)
도장기술 최민원(719050)
자재물류 주규현(360513)
신세기팀 유은주(0189913)

● 당첨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산책

세계 최대 해운국, 그리스에서 영업을 꽃피우다

그리스는 유럽 문화의 원류인 헬레니즘의 발상지로 도시를 포함한 남단은 비옥한 토지가 부족하여 일찍부터 해상무역에 종사했다. 그 중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를 꽃피우는 조카나니 예술, 문학, 역사 등이 가장 발달한 도시로 현재까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그리스는 전세계 선체의 17%를 보유하고 있고 700여 개의 선사기 자리한 **선사기** 단립 국가로는 단립 No.1, 세계 최대 해운국이다. 그리스 저서는 그곳에서 회사와 DM의 우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추진자극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Greece